



★들 출격준비 끝... 유도 조구함 오늘 첫 금 메친다

오늘부터 메달 레이스...광주·전남, 박선관·임태정 등 수영 출전
8일 양궁·사격·태권도서 최대 금 7개 사냥 '1차 골든데이'
12일엔 이용대·손연재 빅게임 준비...한국 금 25·종합 3위 목표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가 3일 화려한 축포와 함께 개막했다.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선수 382명, 임원 134명 등 총 516명의 선수단을 꾸렸다. 한국은 안방경기의 이점을 활용해 금메달 25개를 획득, 종합순위 3위에 복귀한다는 목표다.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태권도·유도·양궁에서 무더기 금맥을 캐고, 여기에 사격·배드민턴에서 선전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출발은 상쾌했다. 지난 2일 사전경기로 열린 축구는 남녀 대표팀 모두 3-1로 승전보를 올렸다. 남자배구도 장신의 호주를 맞아 접전 끝에 3-2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메달 사냥은 대회 이틀째인 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유도 4개, 수영 3개, 다이빙 2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한국은 유도에서 첫 금메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남자 -100kg급의 조구함(23·수원시청)이 유력하다. 2013 러시아 카잔U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한 조구함은 4일 오후 6시15분 영주맞고체육관에서 '금빛 메치기'에 나서 대회 2연패를 노린다. 남자 +100kg급의 김수완(27·남양주시청), 여자 -78kg급의 박유진(22·용인대)과 +78kg급의 김민정(27·동해시청)도 이날 메달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를 위해 새로 지은 남부대국제수영장에서는

수영 경영과 다이빙이 열린다. 오전 8시30분부터 여자 400m 개인혼영, 4×100m계영, 남자 4×100m 자유형릴레이 등의 예선을 시작해 오후 7시19분부터 결승전에 돌입한다. 광주·전남 선수로는 남자 경영의 박선관(24·고양시청)과 임태정(20·전남수영연맹), 여자 백수영(24·광주시체육회)과 이재영(24·광주시체육회)이 출전한다. 다이빙의 손태랑·김진용·김영남, 문나윤·김나미·고은지는 남자 3m·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연기를 펼친다. 한국은 5일부터 금메달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사격에서만 4개 이상의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이날 남녀 10m 공기소총을 시작으로 다음날 남자 50m 권총 등으로 '금빛 총성'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7일부터는 태권도가 시작된다. 이날 태권도 품새에서 금메달 2개가 나오고 9일부터 겨루기 종목에서 금메달 주인공이 결정돼 한국의 메달 레이스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8일은 한국의 '1차 골든 데이'로 기대를 모은다. 전통 강세 종목인 양궁·사격·태권도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양궁 리커브 종목에서 금메달 5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석권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의 딸' 기보배(27·광주시청)와 최미선(19·광주여대)을 비롯해 강재영(19·경희대), 김우진(23·청주시청), 구본찬(22·안동대), 이승운(20·코오롱)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포진, 한꺼번에 금

맥을 터뜨릴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사격과 태권도에서 금메달이 추가로 나온다면 한국은 8일 하루에만 금메달 7개 안팎을 수확하게 된다. 9일부터 태권도 겨루기가 시작돼 매일 '금빛 발차기'가 기대되고, 10일에는 남녀 탁구 단체전 결승전이 열리면서 구기 종목에서도 금메달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1일에는 야구 결승전과 골프 남녀 개인 및 단체전 최종라운드가 열리고 태권도에서도 금메달 2개 안팎을 기대할 만하다. 대회 막판인 12일에는 빅게임이 준비하다. 화순 출신 이용대(27·삼성전기)가 이끄는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5개 중 4개 이상을 따낸다는 목표다. 광주U대회 최대 흥행 종목인 리듬체조 손연재(21·연세대)도 이날부터 이틀간 금빛 연기를 선보인다. 또 여자핸드볼과 남자 축구도 결승전을 펼친다. 광주·전남 선수 중에서는 유도 김성연(24·광주도시철도공사)이 5일 -70kg급에서 가장 먼저 금메달 소식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도마의 신' 양학선(23·한국체대)이 대회 2연패를 노리고, 미녀 궁사 기보배와 최미선, 배드민턴 황태자 이용대 등도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구기 종목에서는 핸드볼 김은아(27·인천시청)·주희(26·서울시청)가 '우생신 신화'를 재현하고, 남자축구 김동준(21·연세대)·전인규(22·남부대)·연제호(21·선문대), 여자축구 민유경(20·서울한양여대)·박예은(19·고려대)이 금메달 수확을 돕는다. 야구는 이견열 감독(52·동국대)과 고천주(45·송원대) 코치의 지휘 아래 양구열(21·중앙대)·이성규(22·인하대)·장진혁(22·단국대)·박창빈(21·동국대) 등이 금빛 아지를 그려대겠다고 버리고 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배드민턴 이용대

“프로농구서 좋은 경험...中 선전대회 아쉬움 씻겠다”

한국 선수단 기수 이승현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기쁩니다.” 지난 시즌 프로농구 신인상에 빛나는 이승현(23·고양 오리온스)이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 한국 선수단의 얼굴로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밟았다. 그는 이번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 기수로 나서면서 대표팀의 대표가 됐다. 이승현은 “소식을 듣고 ‘왜 내가 뽑혔지?’라는 생각도 했다. 그만큼 놀랐고 영광스러웠다. 국가대표 자체가 막중한 임무를 띠는 것인데 기수까지 맡아서 긴장을 많이 했다”고 웃었다. 197cm의 이승현은 지난 시즌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오리온스 유니폼을 입은 선수다. 정규 리그에서 평균 10.9점을 넣었고, 리바운드는 5.1개를 잡으며 생애 한 번뿐인 신인왕 기회를 붙잡았다.



이승현은 프로에서의 경험을 더해 앞선 대회의 아쉬움을 달래겠다는 생각이다. 이승현은 “지난해 프로 선수로서 좋은 경험도 했고 이번에 다시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으로 뽑히게 돼서 기분이 좋다. 대학 1학년때 나간 선전 유니버시아드에서는 성적이 좋지 못했다. 저번에 못했던 성적을 꼭 내보자는 각오다”며 “예상치 못했는데 선발이 돼서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지는 않다. 컨디션 조절 잘 하겠다. 예전에는 막내였지만 이번에는 대표팀의 만능으로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긴장도 되고 부담감도 들지만 워낙 좋은 선수들이라서 많은 역할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애들 잘 이끌고 좋은 모습으로 대회를 치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대회 남자 농구에는 24개국 팀이 참가했으며 4개 조로 나눠 경기를 갖는다. 독일, 중국, 에스토니아, 앙골라, 모잠비크와 함께 A조에 속한 한국은 4일 오후 5시30분 동강국제체육관에서 모잠비크와 대회 첫 경기를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

■ U 대회 주요 경기 일정

<p>4(토) ☀</p> <p>09:50 기계체조 양학선 출전 (광주여대)</p> <p>12:00 농구 미국-터키 (동강대)</p> <p>18:15 유도 김성연 결승 (영주빛고을)</p> <p>19:19 수영 400m계영 결선 (남부대)</p>	<p>5(일) ☀</p> <p>09:50 기계체조 양학선·박은경 결선(광주여대)</p> <p>13:00 사격 10m공기소총 결선 (나주종합사격장)</p> <p>16:30 축구 한국-이탈리아 (정음종합)</p> <p>19:50 펜싱 에페·플러레 결승 (김대중센터)</p>	<p>6(월) ☀</p> <p>09:30 배드민턴 이용대 예선 (화순하니움)</p> <p>13:00 배구 브라질-미국 (여, 영주종합)</p> <p>14:30 조정(충주 탄금호)</p> <p>16:00 핸드볼 한국-중국 (고창군립)</p> <p>18:00 야구 한국-일본 (첼피언스필드)</p>	<p>7(화) ☁</p> <p>09:50 기계체조 양학선 종목별 결선(광주여대)</p> <p>11:00 양궁 컴파운드 결승 (광주국제양궁장)</p> <p>16:00 태권도 품새(조선대)</p> <p>19:00 수영 경영 결선(남부대)</p>			
<p>8(수) ☁</p> <p>07:00 골프 1R (나주골드레이크)</p> <p>09:00 육상 첫날(월드컵경기장)</p> <p>11:00 양궁 리커브 기보배·최미선 결승(광주국제양궁장)</p> <p>17:30 탁구 남녀 단체 8강 (장성홍길동)</p> <p>18:15 유도 단체전 결승 (영주빛고을)</p>	<p>9(목) ☀</p> <p>11:00 다이빙 결선(남부대)</p> <p>16:00 핸드볼 한국-일본 (여, 나주실내)</p> <p>16:45 육상 박영식·배찬미·김국영 결선 (월드컵경기장)</p> <p>17:00 펜싱 단체전 결승 (김대중센터)</p> <p>18:00 태권도 겨루기(조선대)</p>	<p>10(금) ☀</p> <p>11:00 야구 준결승(무등경기장)</p> <p>16:45 육상 이준·김의연 결선 (월드컵경기장)</p> <p>17:00 탁구 남녀 단체전 결승 (장성홍길동)</p> <p>18:00 배구 준결승 (남, 영주종합)</p>	<p>11(토) ☀</p> <p>07:00 골프 4R 이정은·김아인 (나주골드레이크)</p> <p>14:00 리듬체조 손연재·이다애 예선(광주여대)</p> <p>17:10 육상 세단뛰기(배찬미) 결선(월드컵경기장)</p> <p>18:00 배구 여자 결승(영주종합)</p> <p>19:00 야구 결승(첼피언스필드)</p>	<p>12(일) ☀</p> <p>14:00 리듬체조 손연재 개인종합 결선(광주여대)</p> <p>18:00 배드민턴 결승(화순하니움)</p> <p>19:00 축구 여자 결승(나주공설)</p> <p>20:00 배구 남자 결승(영주종합)</p>	<p>13(월) ☀</p> <p>11:30 탁구 남녀 단식 결승 (장성홍길동)</p> <p>14:00 리듬체조 손연재 종목 결선(광주여대)</p> <p>18:00 농구 남·녀 결승(영주종합)</p> <p>18:00 태권도 겨루기 단체전 결승(조선대)</p> <p>19:00 축구 남자 결승(나주공설)</p>	<p>14(화) ☀</p> <p>19:00 폐회식 (월드컵경기장)</p>



기계체조 양학선

